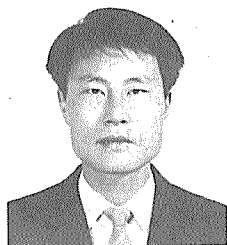


한·일 전자제품 수출경쟁력 비교분석

— 환율 변동 중심으로 —



조 규 재
본회 조사부

1. 최근의 수출시장 주변여건

'96년에 들어와 우리 제품의 수출 신장률은 급격히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전자산업 최대의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의 하락과 주요 교역국인 미국, 일본, 동남아 등지의 수입수요 감소가 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엔저 효과의 가시화가 계속되고 있어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 「W」, 「¥」화의 변화 추이

원화대 미달러 환율은 전년도 6월을 저점으로 계속 저하 추세에 있으며 금년 6월말 현재('95. 6월말대비) 6.7%의 절하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엔화대 미달러는 전년4월 한때 79엔선까지 절상되는 이른바 초엔고 현상을 보였으나 그후 급격한 절하 추세가 계속되어 금년 6월말에는 109.71엔을 기록하여 31.0%의 저하율('95. 4월말대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엔화 약세 지속에 따라 전년4월 한때 955원선까지 상승했던 W/100¥의 환율도 금년 6월말 740,00원을 나타내 1년여만에 원화가 엔화에 비하여 18.2% 절상율('95. 4월말대비)을 나타내고 있다.

결국 원화와 엔화가 미달러에

대하여 절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원화보다 엔화의 절하폭이 상대적으로 높고 엔화에 대한 원화의 절상율이 현저하기 때문에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주요 교역국의 수입 수요 감소

금년들어 우리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의 수입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우리 제품의 수출이 영향을 받고 있다.

지난 1/4분기 중 미국은 전년 동기대비 수출은 10.1%, 수입은 8.4%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원·엔화의변화 추이

구 분	'95 4월말	'95 6월말	'95 9월말	'95 12월말	'96 3월말	'96 6월말	96.6월말/ 95.4월말
W/US\$	761.80	758.10	768.40	774.70	782.70	809.00	6.2
W/백¥	904.21	896.10	770.52	749.23	729.76	740.00	-18.2
¥/US\$	83.77	84.77	98.18	102.83	106.29	109.71	31.0

주 : W/US\$, W/100¥은 매매기준율이며 ¥/US\$는 동경종가 현물임

'95년 1/4분기의 같은 기준 수출 증가율 18.9%, 수입 증가율 19.8%에 비하면 극히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났다.

일본 역시 지난해 3월까지 전년 동기대비 25.8%의 수입 증가율을 보였으나 금년 1/4분기에는 전년 같은기간과 비교하여 10.2%의 낮은 수입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밖에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의 지난 1/4분기 수입 증가율도 전년 같은기간의 증가율 보다 낮은 5.7%, 10.6%, 20.4%로 나타나 우리 제품의 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 환율 변화에 따른 한·일 주요 품목의 수출 경쟁력 비교

전제조건

- 환율 변동 이외의 여타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
- 특정한 경제학적 MODEL을 적용치 않은 단순비교임
- 한·일 품목 구분에 있어 가격, 디자인 등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최근 큰 폭의 엔저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제품의 수출 경쟁력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일본은 이러한 엔저 현상을 수출을 증가할 수 있는 호재로 이용하여 제품의 수출가격 인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95년 4월을 기준으로 수출단

주요국의 수출·입 증가율

구 분	1995(1~3)		1996(1~3)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미 국	18.9	19.8	10.1	8.4
일 본	14.0	25.8	2.9	10.2
대 만	23.3	18.1	9.3	5.7
중 국	62.0	16.9	-8.7	23.2
홍 콩	20.1	27.5	13.2	10.6
싱 가 폴	39.1	25.7	16.4	20.4

주: ① 각국의 전산업 수출입 증가율임

② 미국은 2월까지의 실적임

자료: 통상산업부

한·일 주요 품목의 수출가격, 지수 비교

(단위: %)

구 분	'95. 4	'95. 6	'95. 9	'95. 12	'96. 3	
C - TV	한 국	100.0	102.9	99.4	113.7	114.9
	일 본	100.0	106.6	115.3	121.9	94.2
VTR	한 국	100.0	106.9	111.5	113.7	116.8
	일 본	100.0	97.6	77.0	86.7	82.2
M W O	한 국	100.0	95.1	95.1	108.7	109.7
	일 본	100.0	95.4	86.9	75.5	98.3
모 니 터	한 국	100.0	103.8	101.9	143.6	133.6
	일 본	100.0	99.6	98.5	96.3	88.4
F A X	한 국	100.0	122.2	122.7	118.7	113.6
	일 본	100.0	92.2	94.3	108.5	85.1
C P T	한 국	100.0	110.9	114.5	110.9	74.5
	일 본	100.0	122.9	121.5	129.2	125.0
P C B	한 국	100.0	83.3	89.6	102.1	100.0
	일 본	100.0	96.3	95.3	102.8	109.3

가를 100.0으로 했을 때 일본의 C-TV는금년 3월 수출가격 지수가 94.2%로 나타났으며 VTR, MWO도 각각 82.2%, 98.3%로 수출가격을 인하하여 가격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니터, 팩시밀리 등 산업용기기도 전년 4월을 기준으로 금년 3월의 수출가격이 각각 88.4%, 85.1%의 낮은 가격으로 수

출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쟁력이 뚜렷한 CPT는 엔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수출가격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5년 4월 기준으로 '96년 3월에는 가격 지수가 12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일본은 환율 변화에 따라 대부분의 제품을 물량조절 보다는 수출가격 변동으로 대처하

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CPT와 같이 경쟁력이 있는 제품은 물량조절로 수출가격을 인상시키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비하여 우리 제품은 수출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출경쟁력이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 비해 중소형 제품의 수출비중이 높은 모니터는 '95년 4월을 기준으로 금년3월의 가격지수는 무려 133.6%로 높아져 수출경쟁력이 일본 제품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 C-TV, VTR도 '96년

3월 현재 전년 4월과 비교한 수출가격 지수가 각각 114.9%, 116.8%로 인상되었으며 팩시밀리도 113.6%의 높은 가격으로 수출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일본 제품에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수출 채산성도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엔저 현상이 1년이상 지속되고 있고 그 효과도 가시화되고 있어 일본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제품의 수출 경쟁력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엔저 현상을 최대한 이용하여 수출가격 인하 전략을 구사하면서 시장확대를 도모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그 방안으로는 첫째, 일본기업의 전략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가격인하의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규제를 완화하여 자본유출이 확대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자기자본 조달비율(20%)을 국제화 시대에 맞게 하향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제품 및 시장 차별화 등으로 적극적으로 수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산기협, 기술부설 R&D투자 급증

지난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투자는 총 7조3천4백75억원으로 94년에 비해 36%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가 9천3백64억원을 투입, 1위를 차지했고 다음이 LG전자 4천4백77억원, 현대전자 2천6백7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여전히 대기업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강신호)가 조사한 기업부설연구소 95년 현황과 96년 전망에 따르면 업체별로는 전기·전자분야

의 연구개발투자가 3조5천2백8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출액대비 투자율도 4.65%로 가장 높았다.

또 기계분야는 2조54억원(매출액대비 3.3%)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기술발전속도가 빠르고 첨단산업일수록 연구개발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구개발 상위 10대기업의 투자액이 3조1백33억원으로 전체투자액의 41%를 차지하고 대기업계열회사의 투자액을 전부 합치면 전체투자액의 85%를 상회하는 6조5천1백97억원에달해 연구개발

활동이 여전히 대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평가했다.

기업부문의 96년 연구개발비는 지난해에 비해 40% 정도 증가한 10조 3천4백24억원(매출액대비 3.19%)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어려워진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95년말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는 2천2백70개소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7%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연구원은 6만8천8백30명으로 같은 기간중 약 2배 증가했다.